

태풍 힌남노, 오늘 다시 '매우 강' 단계 유지

오늘 오전 '초강력' 발달→오후 '매우 강' 전국 강수량 100~300mm, 제주도 400mm

제 11 호 태 풍 ' 힌 남 노'(HINNAMNOR)가 '매우 강' 단계를 유지하며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다.

힌남노는 오늘 오전 '초강력'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관측되는데, 기상청은 4일 밤부터 한반도에 본격적인 강수가 시작됐다.

이광현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기상청 수시 브리핑을 통해 "위성 영상을 보면 태풍이 오키나와 남쪽에서 머무르는 동안 일부 와해되면서 약해진 것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대단히 강력한 '매우 강'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다"며 "태풍의 영향이 제일 강해지는 시점은 이 비구름대와 본격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라고 설명했다.

태풍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940hPa, 강풍반경은 430km이다. 중심최대풍속은 초속 47m로 '매우 강' 단계다.

힌남노는 한 차례 더 강해졌다가 다시 약화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예보에서 힌남노가 5일 오전 9시 서귀포시 남남서쪽 460

km 해상에 도달할 무렵 중심기압 92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54m로 '초강력'의 강도로 발달하겠다고 예보했다.

태풍의 강도는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중-강-매우 강-초강력' 4단계로 분류된다.

이후 힌남노는 5일 오후 9시 서귀포시 남남서쪽 180km 부근 해상에 도달하면서 중심기압 940hPa, 최대풍속 초속 47m의 강도 '매우 강'으로 다시 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태풍은 오는 6일 새벽 제주도를 지나 오전에 남해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지 않고 남해안 근처를 지나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태풍이 6일 오전께 남해안에 도착할 경우 폭풍해일 경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해안이 저지대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 예보분석관은 "태풍 중심의 낮은 기압으로 수면이 상승한 상황에서, 5일 오후부터 6일 사이 조위가 높은 상황이 겹치면 해안이 저지대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최대 10m 이상의 집채만한 물결이 일 수 있다"고 예고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과 태풍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 및 남해안의 예상 강수량은 오는 6일까지 전국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북상 중인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인근 앞바다에 겹쳐만 한 파도가 일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오는 6일 새벽 제주를 지나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됐다.

100~300mm로 예상된다. 시기로 보면 이날 수도권 및 제주도에 20~30mm, 오는 5일에는 수도권, 강원영서중북부, 충남북부 50~100mm, 오는 6일에는 전국에 50~100mm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5일 밤부터는 제주도와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 울릉도, 독도에 초속 40~60m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경북동해안과 강원영동, 전남서해안에도 초속 30~40m의 바람이 불겠다.

이 예보분석관은 "이번 태풍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태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 있었다. 철저히 대비하고, 부디 안전한 곳에 머물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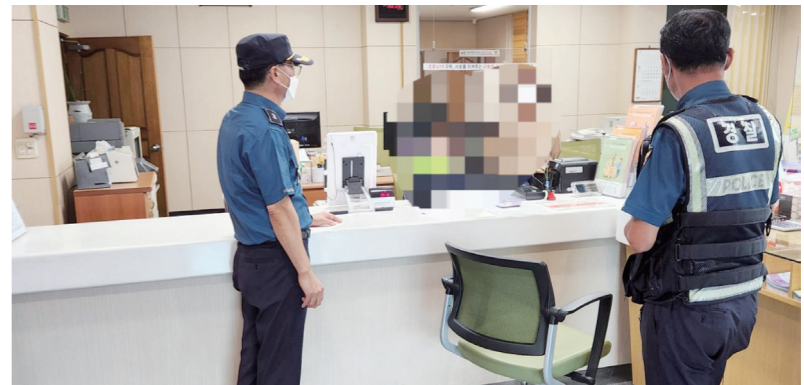
태풍은 한반도를 지나 동해상으로

진출한 뒤 오는 7일까지도 독도와 울릉도에 강풍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예보분석관은 "힌남노는 대단히 강력해서 북상 과정에서 열을 받아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를 지난 뒤에도 강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03년 태풍 매미는 중심기압 최저치 951.5hPa(헥토파스칼)를 기록하며 사망 119명, 실종 12명, 이재민 6만 1844명, 재산 4조2225억원의 피해를 냈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빨아당기는 힘이 커 위력이 강해는데, 힌남노는 5일 오전 3시 920hPa의 중심기압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환기자



담양경찰, 악성 피싱사기 척결 위한 금융기관 방문

담양경찰서는 악성사기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을 찾았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양경찰, 광양시의회 방문 치안설명회 개최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는 1일 광양시의회 회의실에서 서명배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치안인프라 구축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보성경찰,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지난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보성경찰서·보성군청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은 실천하고 의무위반은 하지 않겠다"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보성=김덕순기자



완도해경, 민·관 합동 정박어선 화재진압 훈련 실시

완도해경경찰서(서장 김경수)는 8월 30일, 해상 송진연 어란진항에서 항포구 정박어선 화재 발생을 가정한 민·관 합동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무안소방, 운남119지역대 구급차 발대식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지난 1일 운남119지역대에서 김신 무안군수, 각 기관 단체장, 의용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남119구급대 발대식을 가졌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주 남부소방, 추석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예방 컨설팅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해 화재예방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허가받아 재배한 대마, 불법 유통 일당 검거...29억원 상당 압수

유통 4명과 매수·흡연자 13명 등 17명 입건

합법적으로 재배 허가를 받은 대마 일부를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하고 이를 매수해 흡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대마를 불법으로 유통한 30대 A씨 등 4명과 매수·흡연자 13명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범 A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아울러 시가 29억원 상당의 대마초 약 29.3kg과 재배 중인 대마 691주를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한 대마는 지난해 전체 대마 압수량(49.4kg)

의 59.3%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북 지역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불법으로 유통하고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4명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마 종자를 채취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야산 3006㎡ 면적에 대마를 재배했다. 이후 행정기관의 점검 전 대마초 30kg 가량을 몰래 수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kg을 트위터와 텔레그

램 등을 통해 광고한 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만들어 시제품으로 나눠주기도 했다.

경찰은 대마 재배 허가 이후의 감독시스템이 보완해야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마약류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마의 파종과 수확 시에만 보고받아 점검토록 하고 있다. 그 기간 사이의 실제 재배량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A씨 일당도 지난해 대마 종자 7kg을 수확하고 7kg을 폐기한 것으로 지자체에 보고했으나 실제 더 많은

대마를 재배한 뒤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대마 유통 사기는 실내에서 음성적으로 재배한 대마가 판매되는데 이 사건은 합법적으로 재배한 대마를 음성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매수자가 대마초를 클럽에서 흡연하고 유흥업소 손님과 종사자 간 매대·수수·투약 등의 행위를 확인했다"며 "마약류 유통과 소비의 온상지로 언급된 클럽과 유흥업소 등에서의 위법 사실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탕 빈 포구, 육지로 대피한 소형 선박들

지어서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4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인근 포구(왼쪽)가 탕 빈 가운데 도로변으로 옮겨진 소형 어선들이 즐

전신주 노동자 추락사 유발...건설업자 징역

전기공사장의 추락 방지·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8일 일련전 기공사(5kW) 전선에 대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남 한 지역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 설치 작업을 하던 B씨를 휩쓸어 풀리며 7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주지 않아 산업재해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체 소유한 안전대 휩쓸의 결함 여부와 기능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취재본부